2015 히브리서 제6강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말씀 / 히브리서 7:1-28
요절 / 히브리서 7:24,25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 강의(4,5장)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큰 대제사장(Great high priest Jesus)으로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하는데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班次-반열)를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Eternal high priest)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레위지파 출신의 대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심을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또 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I. 레위보다 높으신 예수님(1-10)

첫째, 의의 왕, 평강의 왕(1-3).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로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기른 318인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하여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창14:19,20) 이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분을 인정하고 동시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명칭으로서(시76:2)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세계는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우상의 종류가 3천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그루터기인 남은 자를 남겨 두시는 것 같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인 멜기세덱을 남겨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①**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인 '멜레크'와 '의'라는 뜻인 '쩨다카'의 합성어로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인 '샬롬'에서 유래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야 왕국의 특징을 공평과 정의, 평강으로 묘사했습니다(사 9:6,7). 예수님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의와 평강을 만들어 내고 이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요일2:1). 그 분은 이 땅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마3:17).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시고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다 치루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면서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비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불화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이 되는 이유는 ②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은 멜기세덱이 초인적인 인물이거나 신적이고 천사적인 존재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5:1절을 볼 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을 취하는 것이 선결조건이었습니다. 4절에서 '이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상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론의 제사장과 관련하여 제사장의 족보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육신적인 혈통과는 전혀 관계없는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반드시 족보가 있고, 그 족보에 부모가 누구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족보도 없고 그 부모에 관해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말도 같은 원리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25세 때부터 50세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민8:24,25). 말하자면 50세가 되면 제사장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는 그러한 제한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의 육신적 생명이 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제사장직의 생명이 오십 세에서 끝나지 않고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선임자나 그의 대를 이를 후임자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한정된 시기에 제사장 직무를 끝마치고 그 직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영구적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보다 먼저 존재하셨음을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장직은 근원적인 것이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그 복사품에 불과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던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4-10). 4-10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략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으로 하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고,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그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요8:33)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으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것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멜기세덱을 존귀하게 여기고 십일조를 바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십일조를 바친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 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들로서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무(專務-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 봄)하기 위하여 다른 열한 지파로부터 십일조를 취하여 먹고 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열한 지파는 십일조를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레위지파는 십일조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②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위대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8절에서 '죽을 자들'이란 레위인들을 가리키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멜기세덱을 가리킵니다. 레위인들이나 멜기세덱이 똑같이 십일조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을 레위인들이 십일조를 받은 것보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이 십일조를 받은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을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으므로 레위는 뱃속에서 함께 십일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 원리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하나의 개인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올 모든 자손들의 대표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릴 때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모형인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뛰어나다면 원형인 그리스도가 레위보다 더욱 뛰어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예수님이 레위 반열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고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본질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뛰어나신 분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보다 높으시고, 모세보다 높으시고, 아브라함, 아론, 레위지파 제사장들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미가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태초에 까지 올라갑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그것을 알고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붙들고자 합니다. 그의 힘을 빌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 자살한 성완종씨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렸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자기가 뇌물 준 사람들의 이름을 써 놓고 자살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 붙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천박한 우리 죄인들을 높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나는 한없이 낮은 자이지만 예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복음성가/ 시와 찬미 41장)

작년 3월 31일 미국 아틀란타에서 윌리 마이릭(Willi Myrick)이라는 10살 먹은 소년이 유괴범에게 납치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나이인데 보통 아이들 같으면 겁

이 나서 찍소리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는 납치되어 끌려 다니는 3시간 동안 차안에서 계속하여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Every praise is to our God”“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무리 납치범이 욕을 하고 협박을 해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윌 리가 3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자 납치범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윌리를 풀어주고 도망갔습니다.

이 소년이 귀한 것은 누가 높은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흉기를 들고 있는 납치범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윌리는 예수님이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납치범의 마음도 녹아내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제압하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믿음, 살아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우리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7부)가 예수님을 힘써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7부)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II.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예수님(11-28)

멜기세덱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14장외에 시편 110:4절에 나옵니다. 시편 110: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메시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반차-班次)을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아론의 서열을 좇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이는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11). 제사제도가 불완전하다면 제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율법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계명으로 생각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제도는 장차 올 참된 것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된 것이 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지파 출신이 아니라 이때까지 한 번도 제단 일을 섬긴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13,14). 성경은 메시야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사11:1). 그런데 다윗은 레위지파가 아니라 유다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율법을 좇아 세운 모든 제사직분이 폐하여졌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제사장이 되신 것을 보면 제사제도에 관한 모세의 모든 율법체계가 폐하여졌다는 것은 더욱 분명한 일입니다(15).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16-19). 16절을 보십시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란 모세의 모든 율법체계를 말합니다. 이 계명이 폐하여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면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한계를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19a). 율법은 죄를 인식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지만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속죄제물이 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을 괴롭히는 죄와 죽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좇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율법을 통해 주신 소망보다 훨씬 더 좋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19b). 죄악 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20-22). 율법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는 맹세 없이 되었습니다. 맹세 없이 된 것은 그 직분이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110:4절에서 메시야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제사직분이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셋째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23-25). 구약의 제사직분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죽기 때문에 가변적(可變的-바꿀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이고 영속성(永續性-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아론부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무려 83명의 대제사장이 갈렸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도 죽음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파하시고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합니다(24).

제사장이 자주 바뀌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제사장이 병들고 드러누우면 중보하는 것도 올 스톱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13: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며 중보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효과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직분은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완전하고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 죄의 오염과 죄책감, 율법의 저주, 사망권세, 영원한 심판 등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거룩하고 단번에 자기를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26-28).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사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해서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아무 흠과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죄에 싸여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낼 때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단 번에 자기를 드려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살아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형이 몹쓸 병에 걸려서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기꺼이 동생이 형을 위해 헌혈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형에게 부모같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헌혈 하던 동생이 의사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는 거죠?” 그 동생은 형을 위해 헌혈하면 자기 몸에 피를 다 뽑고 자기는 죽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동생의 그 말을 듣고 있던 형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헌혈이 뭔지도 몰랐지만 형을 위해 자신의 피를 다 뽑아 주고자 한 동생의 마음이 너무 갸륵했기 때문입니다. 형을 위해 자기 목숨을 단번에 바치고자 했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형은 동생을 평생 동안 아끼고 우애하며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면 자신의 피를 뽑아서라도 주고자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씻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온 성전이 피범벅이 됩니다. 제사장의 옷과 온몸은 피로 얼룩지고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흘렸습니다. 양이나 소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단번에 바쳤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

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창조주가 속죄양이 되셨다’ 이것은 아무리 지각을 사용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느끼는 바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 줍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나중에는 생명까지 내어줍니다. 요한복음 3: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예수님은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 한 후에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너 뛸 수 없는 심연(深淵-깊은 못.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가로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심연을 '눈얼음 계곡', '극(極) 지역', '황폐 지대(地帶)'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양편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영원하고 온전한 중보자라야 합니다. 역사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갈망해 왔습니다. 이는 인간이 낙원을 상실한 이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낙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영국의 랭카셔 지방에 설교도 훌륭하며 힘도 있고 감화력도 커서 성공을 거둔 어떤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몇 교인들이 모여서 이 목사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성격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채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분의 태도나 동작이 숭고하고 장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한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물샐 틈 없는 착실한 교제를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노부인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하며 수긍했다고 합니다. 모세도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출34:29,30).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둘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인간이 세운 중보자는 죄가 많고 결국 죽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참된 중보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참된 중보자로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 생명을 부여 받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자유와 참 안식과 참 소망과 참 위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크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품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새 생명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원하고 온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의 특징을 여러 가지 말했지만 핵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 끊임없이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죄악 된 본성이 강하지만 끊임없이 변화 성장시켜 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를 위해 지금도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